

특별시의회, 통합 현안 산적에도 국외연수 채비 ‘논란’

운영위, 11개 상임위 대상 수요조사 추진
7곳 연말 ‘유럽·미국·스페인’ 등 방문 검토
대부분 주제 없이 시기·행선지부터 구체화
한정된 예산에 상임위별 격년제 운영 논의
출장비 부풀리기 사전 ‘기소’...추진 부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연말을 앞두고 한 차례 중단했던 공무원국외연수 논의를 재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 후속 현안이 산적하고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아 국외연수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뚜렷한 연수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행선지와 시기부터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11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공무원국외연수 추진 여부와 희망 시기, 방문 국가 등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각 상임위는 오는 7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 의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가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는 12월 말 유럽, 행정소방위는 12월 17~27일 미국 방문을 살펴보고 있다. 농수산위는 12월 말 스페인·남프랑스, 안전건설위는 12월 21~29일 북유럽을 각각 방문지로 제시했다.

미래산업위는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일본·대만, 문화관광위는 12월 17~25일 프랑스·이탈리아, 보건복지위는 12월 21~31일 프랑스·이탈리아 방문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연수 주제가 제시된 곳은 미래산업위가 유일하다. 미래산업위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고 연계해 일본 구마모토와 대만의 반도체 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나머지 상임위는 방문 국가와 대략적인 일정은 제시했지만 어떤 정책과 현안을 살펴볼 것인지, 어떤 기관을 방문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연수 목적과 주제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공무원국외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해외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 현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연수 주제와 방문기관을 정하기에 앞서 시기와 행선지부터 제시하면서 추진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 희망 시기가 12월 중·하순에 집중된 점도 눈에 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5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45일간 열리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는 회기 종료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출국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공식 회기 일정과 겹치지는 않지만 복수 상임위가 연수를 추진할 경우 다수 의원과 의회사무처 지원 인력이 비슷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행정통합이 이뤄진 지 석 달여밖에 되지 않아 조직개편 후속 작업과 사무·조례 정비, 공공기관 통합 등 급박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의회 역시 통합에 따른 제도·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아 특별시는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의원 공무원국외연수 관련 예산은 옛 광주시의회 9천200만원, 옛 전남도의회 2억5천200만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의회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국외출장 과정에서 불거진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국외연수 추진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옛 전남도의회 의국출장비 관련 사건이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사건이 장기화 이어지면서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기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외연수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추진 여부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올해 안에 추진하려면 이달 중 결정해야 하는 만큼 조레에 따라 목적성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궐시장 “2년 안에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를 바탕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2일 순천 동부청사에서 열린 직원 소통 행사 ‘공감 토크’에 참석해 “내년 안에 45일제, 2년 안에 4일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배경으로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를 제시했다.

회의, 예산, 계약 등 각종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하면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특별시의 설명이다.



충장로에서 펼쳐진 ‘한복 감성투어’ 한복을 입고 충장로를 거니는 ‘한복 감성투어’가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22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충장동 일대를 거닐고 있다. 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충장축제기간에 맞춰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공>

전남광주시 첫 정기인사...승진·전보 544명

5급 112명·6급 115명 등 363명 승진

2급 이상에 김기홍·강효석 보직 부여

‘안정·성과·역량’ 방침...“도약 뒷받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5급 이하 승진 363명과 4급 이상 주요 간부 전보 181명 등 모두 544명 규모다.

▶관련 명단 18면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사

위원회를 열어 5급 112명, 6급 115명, 7급 102명, 8급 34명 등 5급 이하 363명에 대한 승진을 의결했다. 또 2급 4명, 3급 31명, 4급 147명 등 4급 이상 주요 간부 18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통합 행정의 안정적인 안착과 주요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방점을 뒀다.

2급 보직 인사는 기후환경본부장에 이상배, 균형발전실장에 김기홍, 성장투자유치본부장에 강효석 이사관을 각각 임명했다.

3급은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에 전은옥, 정책기획국장에 김기숙, 안전정책국장에 오영걸 부

이사관 등 3명이 보임됐다. 4급은 시정상황실장에 고경희 서기관 등 147명이 보직을 부여받았다. 특별시는 5급 이하 총 363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의결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인사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면서도 성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통합 과정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전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고 성과와 전문성이 인사에 제대로 반영되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의 안정은 지키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인재는 적극 발탁해 특별시의 새로운 행정체계가 조기에 안착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임원-시장 임기 일치’ 조레안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부 산하기관의반대에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해 법제화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장과 이사·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기존 임원은 새 시장 취임 전에 임기를 마치도록 했다.

통합 전 광주시에서 시행하던 시장과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제를 옛 전남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등 3곳이 조

례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시장 교체에 따라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기를 종료할 경우 기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시는 이 같은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시는 이와 함께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운영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7일 개최하는 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건강을 위한 한걸음, 장흥에서 첫걸음!

제15회 2026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2026.10.15.(목) ~ 10.18.(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15.(목) 14:00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무대

건강강좌
16.(금) 14:00 | 17.(토) 14:00

브레이브소
18(일) 11:00, 15:30

김용빈

박혜신

미스김

현진우

방송인 신(지누션)

홍정기 교수

방탈스타 오브 뮤직쇼

주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문의처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061-860-6263

CMYK